

# 종계등록 사업에 협조 합시다



설 등 섭  
<축산 시험장 연구관·박사>

## 1. 종계등록의 동기(動機)

종계등록이란 말이 요즘 갑자기 논의되고 대한양계협회에서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곧 실시하려고 준비에 분주한 것 같다. 종계를 등록한 다니까 일반 종계업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어떤 특정 양계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한 수단이 아닌가 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항간의 이야기를 듣고 우선 종계등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된 동기부터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붓을 든 것이다.

기회 작년도 부터 수입종계를 양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수입종계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시 가금협회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추천업무에 자문기관으로서 1년여 심의하여 보았다는 사실은 여러 양계인이 친히 알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심의과정에서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는 종계(P.S.)는 양적으로 잘 조절되어 그 효과가 대체로 작년 하반기(가을철)부터 나타나서 대체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비록 원종계(G.P.S.)에 대해서도 종계와 마찬가지로 수량조절은 일단락했지만 이것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종계(P.S.)수량을 제한하기에는 어떤 제도적인 규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즉 다시 말하면 직접 수입되는 종계는 현 체제로서 통제가 가능 하지만 원종계 형태로 국내에 들어와서 생산되는 종계(P.S.)는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작년에 당초 종계수입을 40~50% 줄이려고 했든 것이 G.P.S.가 P.S.를 약속대로 육계 20수, 산란계 3수씩만 생산하지 않고 육계 35 산란계 45수

이상을 생산보급 했기 때문에 20~30%를 줄이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것은 G.P.S. 농장으로 부터의 공식적인 모고를 기초로 한 것이지만 항간에서 오고가는 소문에 의하면 실제로 G.P.S.가 생산하는 P.S.의 수수는 육계 40~50수, 산란계 60~70수 정도로 보는것이 정확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보면 작년 하반기 이후 쏟아져 나온 P.S.의 숫자는 71년도에 파악도입되었던 수량과 비교하면 거의 맞먹거나 약간 하회하는 수량으로 볼 수 있다. 이 수량은 주로 작년 전반기 보다 하반기에 더 심했으리라 보면 수입 P.S.수수 조절에서 간신히 얻은 성과가 금년 여름철을 넘기지 못하고 산란계의 공황이 올 것이며 육계 역시 금년가을을 넘기지 못하는 경기부진을 맞게 되므로서 하루 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올것이 아닌가 염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도입 G.P.S.의 P.S.수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P.S. 조절은 비단 도입종계에만 국한 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개량된 국산종계까지도 광범위하게 포함해서 다루지 않으면 실효를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을 얻어 그것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우선 종계등록이라는 형식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 2. 종계등록의 필요성

등록사업을 하게된 동기는 단순히 양계경기를 우리의 양계인들 손으로 직접 조절하여 보자는 취지에서 거론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얻게되는 이익이 실로 적지 않다고 본다.

첫째 일반 양계인에게 계종선택의 공정한 기회를 부여 하므로 해서 보다 좋은 종계를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몇몇 대규모 부화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의 부화장이다. 이러한 부화장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선전광고를 낼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반 양계인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자연히 어떤 사람의 소개로 병아리를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병아리가 과연 틀림없는 품종인지 능력이 소개하는 바와 같이 우수한 것인지 알 도리가 없다. 즉 공신력 있는 어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계등록을 통하여 대한양계협회에서 농수산부의 인정하에 종계임을 보장하여 준다면 일반양계인도 믿고 좋은 병아리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다.

둘째 협회에서 종계장에 입추되는 종계를 품종별로 수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엉터리 품종을 종계병아리에 섞어서 수량을 늘려 팔지 못하므로 해서 질적으로 보장된 병아리를 양계인들이 구입할 수가 있다. 이것은 특히 종계도입을 조절하기 시작한 이후로 상당히 지역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더우기 병아리가 다소 딸리는 경우에는 산란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적어도 협회에서 주기적으로 각 종계장의 사육수수와 부화상황을 파악하기만 한다면 곧 양계가들에게 알려서 실제 소유하고 있는 종계수수 이상의 병아리수가 일년 내내 쏟아져 나온다는 판단을 하겠다고 하면 곧 그 종계장 또는 부화장에서는 구입하지 않게 되므로써 양계가에게 질적으로 보증된 종계가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종계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종계를 등록하게 되면 병아리의 생산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므로 해서 양계경기를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초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종계의 수량도 그 경기변동의 예측에 의해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양계경기를 능동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은 종계의 수, 사료의 공급량, 예방약의 공급량이 세가지중 한가지라도 뜻대로 조절할 수 있으면 경기보존은 극히 쉬운 것이다. 그러나 이 세가지중 우리 양계인들 손으로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종계의 수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이다. 만약 우리 양계인이 종계수만 완전히 조절할 수 있다면 경기보존은 물론 사료와 약품도 유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종계수의 조절은 어느정도 강요가 뒤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우리사회가 자유주의 체제라해서 서로가 너무 과열경쟁을 하게 된다면 결국 다같이 쓸어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단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종계등록은 거의 정확한 종계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조건을 갖추게 되므로 종계장들이 매년 어느정도의 종계수를 가져야 경기보존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

네째 양계가에게 위생적이고 질병이 없는 건강한 병아리를 공급할 수가 있다.

종계등록의 또 하나의 의의는 종계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정결하게 갖추고 위생적인 면에서 상당한 수준까지 끌어 올릴 수 있을때까지 매년 제몸과 권장을 계속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종계장이나 부화장 스스로가 자기의 수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차 개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반 종계장이 종계등록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양계산업이 영세하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구태의연한 시설과 환경을 고집하여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 하면 앞으로 전개될 자유경쟁은 품종에 앞서 건강한 병아리를 내는 종계장이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지의 결과를 우리 협회는 사전에 방지하여 양계인 모두가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종계등록에 이러한 사설 및 환경 조건을 권장구비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며 행정부의 강력한 후원도 있는 것이다.

다섯째 품종정리에 큰 도움이 된다. 사실 현재까지 각 종계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계품종을 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아도 권장할 가치가 별로 없는 품종을 가지고 꼭 보유하겠다고 고집을 하고 있다. 이유는 상표로 알려져 있는 품종명 그 자체의 매력 때문에 갖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록 종계업자 개인의 생산적인 면에서 불가피 하다고는 하지만 양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

제업자 자신들의 자숙에 기대하는바 적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현재 산란계 육계 공히 10여 품종이 도입되고 있고 그의 국제에서 개발된 닭 품종이 수종 사육되고 있는데 각 양계농가의 입지적 조건, 사양조건 및 경영방식에 따라 알맞는 품종을 선택 하다보면 앞으로 몇년내에 수계 품종으로 자연정리가 될 것이지만 등록사업을 통하여 품종의 특성, 능력등을 알기므로 해서 업자들로 하여금 자기농장의 조건에 알맞는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것은 품종정리를 촉진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여섯째** 자가 교잡종(自家交雜種)을 생산하는 수량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세미부로의 생산과 수입 실용계의 재이용에서 나오는 산란계 교잡종이다. 이런 종류의 병아리가 사실상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 통계를 알 수 없으며 어떤 종계를 활용해서 잡종을 만드는지 알 도리가 없다. 시장수요의 성질상 중형부로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세미부로가 사료효율이 낮다고 해서 막연히 저지하는 것은 잘 못된 일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배조합을 선도하는 의미에서도 파악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사실상 하이부로의 조기출하로서 능히 대체할 수 있고 세미부로부터 수익성이 유리하며 시장수요에 지장이 없으면 국가적인 견지에서 하이부르로 전환 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는다는 면에서 종계등록이 갖는 의의는 실로 크다고 할 것이다. 산란계의 경우 별로 성과를 기대할 수없는 교잡종을 생산하는 부화장을 선도하고 차라리 이튼 있는 계통이 확실한 국산종계로 교체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일도 이 등록 사업이 맡아야 할 일이 아닌가 사료된다.

**일곱째** 종계업 및 부화업의 허가에 대한 기술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부화업과 종계업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허가제도가 없기 때문에 양계산업의 기간이 되는 종계와 부화업을 정화할 방법이 없다. 비록 등록을 하도록 축산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실시되고 있지 않아서 비위생적이고 능력이 불량한 병아리를 마구 팔아서 양계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사태가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

하여 전혀 어떤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구속력이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속수무책인 상태이다. 일반양계업이라건 아직도 자유업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기에 이르기까지는 까다로운 절차 따위를 규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일반양계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계업이나 부화업만은 허가제도를 확립하여 협회의 등록을 통하여 시장·도지사가 허가해 주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보다 발전된 내일의 양계산업을 위하여 바람직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 3. 종계등록의 운영

전항에서 열거한바와 같이 종계등록이 갖는 중요성은 우리 양계산업을 건전한 토대위에서 발전시켜 나가는데 더욱 클 것이라는 점을 이미 누누히 설명 하였거니와 앞서에서 잠깐 비친바 있지만 만약 이 종계등록사업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업자 몇몇을 위하여 유리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중소 종계업자가 가장 열려하고 반대하는 이유도 이런점에 있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 종계등록사업이란 우리 양계인 스스로가 필요해서 시작하는 사업이요 우리 양계인이 공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자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정한 입장에서 양계인 모두가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되어야 할 것이며 정당한 입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양계인 전체가 이 사업을 지원하고 협회에서 실시하는 등록규정을 잘 준수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종계등록사업이 성공리에 진척되면 우선 이러한 역경을 타개하는데 진일보 하게되고 이것을 거울삼아 다시 생산물의 유통 조직을 개선하는데 돌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

### 월 간 양 계

■ 1 년분 : 1500원

■ 반년분 : 800원

소액환을 빼어서

서울 중구 양동 44-28 대한 양계 협회로